

# 신형대국관계에 관한 미중 간 인식차이 분석

유희복(연세대학교)

## 1. 서론

2013년 3월 공식적으로 중국의 5세대 지도부를 이끌게 된 시진핑 주석은 동년 6월, 재임에 성공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방문, 정상회담에서 미중간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제의하였다. 시 주석이 제안한 신형대국관계는 첫째, 충돌하지 않고, 대립하지 않으며(不冲突, 不對抗), 둘째, 상호 존중하고(相互尊重), 셋째, 협력하여 윈윈한다(合作共赢)는 세 가지를 그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sup>1)</sup> 시 주석이 제의한 동 관계의 구축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원론적 차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한 것처럼 보였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듬해인 2014년 3월 시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간 “신형 관계의 강화와 구축”<sup>2)</sup>에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있음을 언급함으로써 중국의 제의를 미국이 수용하였음을 재확인 하는 듯 했다.

그러나 이후 신형대국관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그러한 인식이 정확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냉소적이기까지 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2014년 3월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미중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신형대국관계의 개념과 내용을 중국의 생각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형대국관계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반면, 시 주석은 2013년 오바마 대통령에게 신형대국관계를 처음 공식적으로 제의한 이후,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물론 다양한 대내외 공식 석상에서 신형대국관계와 그 내용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언급해오고 있다.

본 문은 이처럼 신형대국관계의 개념에 관한 미중 양국의 인식적 차이와 변화를 인식론적 기반 위에서 국제관계의 주요 이론적 시각을 통해 분석하고, 양국 간의 인식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조건을 찾아보려 한다. 이를 위해, 이어지는 장에서 경험과 이성 그리고 그에 의한 지식의 축적이라는 차원에서 인식론을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본 장의 목적은 국가 간의 관계를 보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구조주의 등 몇 가지 주요 국제정치이론들이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기본적 시각과 그 한계를 앞에 관한 학문, 즉 인식론적 차원에서 조명해 봄으로써, 신형대국관계의 개념을 통해 미중 양국이 드러내고 있는 인식적 간격의 원인을 그러한 이론적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이어 3장에서는 2장의 인식적 차이가 현실에서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를 2013년 6월 시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2014년 11월, 그리고 2015년 9월 미중 정상회담, 이렇게 세 차례에 걸친 양국 정상회담

1) "习近平概括中美新型大国关系：不冲突、不对抗，相互尊重，合作共赢." 『新华网』, 2013. 6. 10, [http://news.xinhuanet.com/world/2013-06/10/c\\_116107914.htm](http://news.xinhuanet.com/world/2013-06/10/c_116107914.htm) (검색일: 2015. 10. 18).

2) "Remarks by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Xi Jinping of China Before Bilateral Meeting,"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White House, March 24, 2014,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4/03/24/remarks-president-obama-and-president-xi-jinping-china-bilateral-meeting> (검색일: 2015년 10월 18일).

과 성명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sup>3)</sup> 본 장을 통해 미중의 정상이 각각 신임과 재임 후 양국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자 했고 최근까지 그러한 설정 노력, 즉 신형대국관계의 구축과 그에 대한 미국의 미중관계 규정 노력이 현실적 측면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2, 3장을 통해 살펴본 신형대국관계를 둘러싼 양국 간의 이견과 그 괴리를 좁히기 위한 이론적, 현실적 조건들을 탐색 및 제시한 후, 본 논의를 종합하며 결론을 맺고자 한다.

## II.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인식론적 비판

### 1. 인식론과 존재론 그리고 국제정치이론

앎, 즉 지식은 대상에 대한 주체의 인식을 통해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가능하려면 대상과 인식의 주체가 존재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식론은 곧 존재론을 전제로 하며, 존재론은 그것이 이성이든 감각이든 주체로 하여금 인식을 가능케 하는 그 무엇이 존재하는가라는 의심을 제거해 줄 인식론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인식론은 곧 존재론이며, 존재론은 곧 인식론이라 할 수 있으며, 양자는 상호 불가분하고 불가결하다.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 데카르트(René Descartes)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도출한 이 간단한 철학적 명제로써 사유가 곧 존재의 증명 근거임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유의 근거가 존재에 대한 선험적 인식이라면 사유의 발생 자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해진다. 이에 따라 흄(David Hume)은 모든 인식의 출발점은 감각적 경험이라는 경험론을 제시했고, 그 이전에 이미 로크(John Locke)는 이성과 인식의 재료들이 경험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았다. 흄은 더 나아가 존재의 근거로서의 사유, 즉 이성이 정념의 노예일 뿐이며, 또 노예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카르트와 흄은 존재론과 인식론적 측면에서 각각 이성과 경험의 지위를 제고시켰으나, 그런 의미에서 동시에 양자의 지위를 격하시켰다고도 할 수 있고, 이성론과 경험론 모두 양자의 관계 그리고 인식론과 존재론의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지는 못하였다. 칸트(Immanuel Kant)는 인식을 경험적 인식과 선험적 인식으로 나누고 이를 범주(category) 안에 넣어 양자의 화해를 시도했지만, 사고작용의 틀로서 범주가 이미 지성에 예비되어 있는, 즉 선험적인 것으로 보았다는 측면에서 역시 인식론과 존재론의 근원적인 문제를 풀어주지는 못했다.<sup>4)</sup>

존재와 현상, 그에 대한 인간의 인식 그리고 인식의 축적과 체계화 및 합목적적 지식의 종합으로서 이론 간의 이러한 간격, 즉 실제와 이론의 간격은 그런 측면에서 존재론과 인식론이라는 철학의 문제이자 자연과학의 문제이며, 그 주체로서의 인간을 다루는 인문사회과

3) 양 정상 간 회담은 이 세 차례에 외에 2013년 9월 G20 정상회의와 2014년 3월 핵 안보 정상회의를 계기로도 있었으나, 본 문은 특정 다자가 참여하는 정상회의를 계기로 혹은 제3국에서 이뤄진 회담이 아닌 미중 양국의 정상이 상호 방문을 통해서 가진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위주로 하되, 필요에 따라 2013년 9월과 익년 3월 정상회의의 내용을 언급하고자 한다.

4) 백종현 저, “철학의 개념과 주요문제”, 철학과현실사, 서울, 2007.

학의 문제인 동시에, 그 하위 학문분야로서 인간이 속한 최대의 조직인 국가의 문제를 다루는 국제정치학의 본질적 문제이기도 하고, 국제지역학과 비교정치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제정치학의 주류 이론들은 국가와 그 국가들이 속한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된다. 그러나 분류된 이론들은 물론이고 그 이론들의 분류 자체도 세계를 보는 하나의 방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자신과 국가, 그리고 세계라는 대상으로서의 존재 혹은 현상을 보는 인식론과 존재론의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존재론과 인식론의 본질적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고전’, ‘신’, ‘신고전’ 등을 포괄한 현실주의이든, ‘제도’ 등을 포함한 ‘신’ 자유주의든, 종속이론, 세계체제론 등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의 이론이든, 국제정치학의 주류 혹은 주요이론이 국가와 국가 간의 본질적 문제를 규명하고 해소해 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이자, 이들 주요 국제정치이론들이 인간, 국가 그리고 세계라는 대상과 그 대상의 내용 및 관계를 규정하도록 해주는 틀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자체로 인식론적 한계를 존재론적 차원에서 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 그러한 차이는 특정 혹은 몇 개의 국제정치 이론의 시각이 결여하고 있거나 그 시각 밖에 존재하는 현상에 대한 해석의 소유권을 선점하거나 기존의 국제정치 이론에 도전 혹은 그 전복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현실의 국제관계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인식론과 존재론적 한계는 국제정치 이론의 수정 혹은 생성과 소멸의 장으로서 기능하며, 그 장은 그러한 이론적 수정, 생성, 소멸을 통해 다시 현실에서 인식주체로서의 인간존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들이 만든 국가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써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식론적 한계는, 과거에 대한 경험과 학습에 기반하여 과거를 재구성하고 과거와 현재를 설명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지적 실마리를 도출하고자 하는 이론의 몇 가지 목적을 고려할 때, 국제정치이론의 그러한 합목적성의 한계를 드러내주고 이를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동시에 그 장을 제공한다. 주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 철학 및 경제학적 시각 등 상위 혹은 타 학문분야의 개념 도입과 학제적 연구, 구성주의, 페미니즘 이론 등의 등장은 국제정치이론의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설명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동 학문 분야에서의 인식론 및 존재론적 한계의 극복 노력에 다름 아니다.

아래에서는 주류 국제정치이론 중에서 미국과 중국의 시각을 비교적 강하게 반영한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두 이론의 내용과 한계를 신형대국관계의 개념에 관한 미중 양국의 해석 차이의 존재론 및 인식론적 분석을 위한 정초작업으로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4장에서 이를 기반으로 3장에서 나타나는 미국과 중국 간의 상호 인식적 차이를 중국이 제기한 신형대국관계의 개념을 통해 살펴본다.

## 2.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세계 인식과 한계

### 가. 현실주의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은 국가중심주의(statism)와 생존(survival) 그리고 자조(self-help)의 개념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제정치에서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국가이며,

대내적으로 무력의 합법적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하는 존재로서 대외적으로 주권에 의해 독립적이다. 또한 국가는 단일한 행위자로 행동하고 합리적인 행위자임을 전제한다. 현실주의는 모든 국가는 무정부상태 하에서 안보를 최우선적 국가이익으로서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익을 규정하는 권력을 제고시키고 자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sup>5)</sup>

현실주의 이론의 핵심적 개념들은 그 간결하고 단순하며 강력한 설명력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노출한다. 먼저, 국가중심주의는 국가만을 인정하고 그 내부의 실질적 구성원이자 행위 주체인 인간으로서의 시민과 시민사회의 실체적 존재를 경시하며, 따라서 당구공 속에 갇힌 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경제, 사회문화, 과학기술 차원의 역동성과 역사적 발전 경험이 갖는 국제정치적 기능과, 암흑의 상자(Black Box)로 처리된 국가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간의 대내외적 인식에 의해 산출되는 국가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을 파악할 수 없게 한다.<sup>6)</sup> 또한, 국경 밖의 일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다국적 기업이나, 국제기구 등의 영향을 축소시키고, 기후변화, 전염병, 기근, 인권문제 등 안보 이외의 다양한 대내외적 이익을 경시한다. 물론, 모겐소(Hans. J. Morgenthau)는 인간의 본성에서 출발하지만,<sup>7)</sup> 그의 현실주의는 권력과 지배욕 같은 인간의 본성을 객관적 법칙의 터전으로 보고 이를 국가 밖으로 확장, 적용함으로써 주관적이며 선형적인 가정에 그 논리가 기초하고 있고, 이를 인정한다 해도 성악설에 근거한 인간관으로 국가관계를 바라본다는 점에서는 성선설이라는 또 다른 인간의 특성을 배제 혹은 축소시킴으로써 국가 간 협력의 가능성을 제한시키기는 마찬가지이다. 고전현실주의는 도덕의 가치도 중시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안보를 위한 수단이거나 보조적 역할에 머물 뿐이다. 이를 막론하고, 왈츠(Kenneth Waltz)는 성악설이든 성선설이든 인간으로부터의 출발을 소위 환원론(reductionist)으로 비판하며 국가를 단위로 삼고 구조와 체제차원에서 국제정치를 분석하지만,<sup>8)</sup>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국가를 비인간적 성격의 행위체로 상정함으로써 국제정치를 사회과학이 아닌 자연과학으로 간주하는 실증주의적 성향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제거된 결정론적 성향을 보여 평화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축소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국가 간 협력과 제도에 의한 규율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현실주의에서 안보에 대한 주류 개념은 아마도 존재론과 인식론의 문제를 가장 잘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다. 안보위협 존재론적 문제, 즉 안보위협 존재 여부라는 존재의 의미에 관한 문제, 그리고 그에 대한 경험론 혹은 관념론적 인식이라는 인식론의 문제적 성격은 특히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라는 개념을 통해 현실주의 내에서 자체적으로 드러난다. 즉, 국가의 안보추구행위의 공격적 혹은 방어적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안보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은 국제정치학의 흐름 속에서도 나타난다. 전통안보와 비전통안

---

5) John Baylis, Steve Smith, Patricia Owens, eds.,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Fourth E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nc, 2008), Chapter5.

6) Richard Snyder, Bruck, Sapin, *Foreign Policy Making: An Approach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Free Press, 1962).

7)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Fifth Edition, (New York: Alfred A. Knopf, 1978), Part One Chapter 1.

8)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M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Chapter4.

보,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파워의 제 측면들에 대한 구분, 즉 하드파워, 소프트 파워와 같은 구분들, 공세적 혹은 방어적 현실주의라는 현실주의 내 분과의 생성, 구성주의적 시각의 등장들은 모두 안보에 대한 국제정치이론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차이 노정의 현상학이라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실주의는 생존이라는 안보문제를 최우선적 국가이익으로 상정함에 따라, 국가로 하여금 이를 다른 모든 주체와 이익을 희생시킬 근거로 삼을 수 있게 해 준다. 이는 또한 국제관계를 강대국 간 패권경쟁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약소국과 평화에 대한 도덕적 고려를 정치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국가의 비인격화를 초래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문제점을 야기하는 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조의 개념 역시 무정부상태에서의 여러 가지 생존방식의 하나일 뿐, 유일한 방식은 아니다. 구성주의자들의 주장이 보여주듯, 무정부상태는 흡수적 상태를 비롯하여 몇 가지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생존은 집단안보나 지역안보 등, 자조 이외의 형태로도 추구되었다. 동맹이나 세력 균형의 종류와 개념 역시 단일하지 않은데다가, 그 자체로 특정 국가 혹은 국가군이 적으로 상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딜레마를 내포한다. 게다가 적과 친구의 구분도 정체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위협의 존재와 주체 역시 유동적이다.<sup>9)</sup> 게다가 현실주의자들 스스로가 지적하고 있듯이 자조에 의한 국가안보의 추구행위는 불안의 실재 여부와 인식의 한계로 인해 그 성격을 판단하기 어려워 자국의 방어적 행위가 타국에겐 공격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국가 간 이러한 인식의 상호 작용은 오히려 자조의 행위가 스스로를 위협에 빠뜨리는, 안보딜레마라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하고, 국가 간 상호 불신과 불안의 정도를 제고시킴으로써 안보의 악순환으로부터의 탈피를 어렵게 하는 결정론적 시각을 노정한다.

덧붙여, 비단 현실주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가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인지, 비인격적 행위체로서 국가가 어떻게 인식이라는 현존재(Dasein)적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행위 자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sup>10)</sup> 가정이 과연 설득력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인지는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존재론적, 인식론적 문제로 남는다.

#### 나. 자유주의

국제정치에서 국가를 유일한 행위체로 보고 분석단위로 삼는 현실주의에 비해, 자유주의는 국가 이외의 비국가적 행위자의 존재와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현실주의보다 역동적이고 풍부한 설명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자유주의는 분석 단위에서 국가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음과 동시에 국가의 단일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정부로 대표되는 국가 내부의 다양한 사회조직 역시 국가와 마찬가지로 행위자로 본다. 그리고 합리적 행위자로서의 국가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자유주의는 국가가 비합리적이기도 하다고 본다. 이는 인식

9) Alexander Wendt,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2(Spring 1992), pp. 396-399.

10) Graham T. Allison의 외교정책 결정에 관한 Bureaucratic Politics Model에 따르면, 외교정책은 국가이익의 합리적 계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과 이해관계를 가진 관료들 간 이익의 충돌과 그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로서 발생(happening)한다.

론적 차원에서 경험은 때때로 우리를 속인다는 데카르트의 이성론을 떠올리게 하며, 동시에 정념의 노예로서의 이성을 주장한 흄의 경험론적 특성도 상기시킨다.<sup>11)</sup> 경험에 대한 불완전한 인식은 실제와의 혼동을 유발시킬 수 있고, 그러한 착각은 오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으로 인해 현실에서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때때로 전쟁 같은 파멸적 결과를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자유주의는 현실주의가 상정하는 안보지상주의적 시각에 반대하며, 국제정치에는 안보 이외에도 다양한 국가이익의 존재함을 제시하고 이를 중요한 어젠다로 삼는다.

상기의 사항들을 주 전제로 하는 자유주의는 앞서 고전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제시한 성악설에 기반한 시각의 성선설로의 대체적 혹은 보완적 시각으로서 작동한다. 즉, 개인의 자유와 진보적 이성에 대한 로크, 칸트 등 자유주의적 지적 계보에 속한 사상가들의 희망적 혹은 긍정적 시선을 통해 국제정치를 바라봄으로써 자유주의는 현실주의가 축소시킨 인간의 도덕적 가치와 규범의 존재, 제도와 국제법의 형성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인간의 자율성을 복원시킨다. 동일한 시각에서, 유엔,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와 다양한 비정부기구(NGO) 등 국가 이외의 행위자들을 통해 국가에 규제를 가함으로써 국가 간 이견과 이익의 충돌을 조정하고 협력을 유도하려 한다.

이러한 자유주의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그것의 이상주의적 특성이라 해야 할 것이다. 1차 대전 이후, 윌슨주의에 의해 탄생한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의 붕괴와 2차 대전의 발발로 인해 자유주의의 전신으로서 20년의 위기 속에서 생존하다 소멸한 이상주의는 그러한 비판의 적실성을 냉혹하게 증명해 주었다. 현실주의가 안보를 위해 자조를 강조하고, 동맹과 세력균형을 말함으로써 안보딜레마를 초래하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는 데 비해, 자유주의적 시각인 집단안보의 개념은 동맹과 세력균형의 필요성을 제거해 준다. 그러나 하나 혹은 몇 개의 국가군이 동일한 집단안보에 속한 나머지 국가들 중 하나 혹은 일부로부터 안보위협을 감지하는지의 여부를 인식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로 그러한 판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판단이 이루어지는 순간 적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잠재되어 있던 국가이익에 따라 세력균형이나 동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이후에는 안보딜레마라는 동일한 비판에 노출된다.<sup>12)</sup> 민족자결과 국가의 자율성 역시 권력(power)을 독점 혹은 과점한 소수 강대국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일 뿐이며, 그들의 논리에 따라 언제든지 폐기되거나 그들의 손익에 따라 이용될 수 있는 성격의 개념으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처럼, 현실을 무시하고 미래를 낙관해서는 안 된다

11) 국가를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가가 인격화되어 취급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의 단일성과 합리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유주의의 이 같은 시각은 프로이트의 의식과 무의식의 분리, 즉 이성이 지배하는 의식과, 본성 혹은 정념의 터인 무의식의 분리를 연상시키며, 이는 사유의 근본인 이성과 정념 간의 대화라는 측면에서, 인간의 욕망에서 출발하는 고전현실주의와, 왈츠의 주장에 의하면 합리성, 즉 이성과 과학에서 출발하는 신현실주의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출발하는 자유주의의 관계를 인식론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문제 의식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용의 분석심리학을 도입해 선입견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반성의 비판적 역할을 살펴본 글로는 다음을 참조. 최교원, 가다머 해석학과 선입견의 반성- C. G. 용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철학논총, 63, 2011, pp.391-408.

12) John Baylis, Steve Smith, Patricia Owens, eds.,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Fourth E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nc, 2008), Chapter6.

는 현실주의의 비판과 함께 자유주의는 2차 대전이후 자기반성을 거쳐 국제연합(United Nations)을 탄생시키며 재탄생하고, 냉전의 종식과 민주주의 확산으로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무정부상태의 존재와 국가의 자발성은 그 한계로 작용하고 있으며, 여전히 현실주의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자유주의는 현실주의와 달리 그 지적 계보학의 전통이 다원적이며 일관적이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이는 자유주의가 다원주의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며, 그 다원성으로 인해 무정부상태, 권력, 세력균형과 같은 나름대로 체계성을 갖춘 현실주의의 이론보다는 소위 '이론의 섬들'(Islands of theories)로 이루어져 나무는 보지만 숲은 보지 못하며, 구체성과 현실 적용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또한, 개인의 자유의지와 권리에서 출발한 연유로 행위자의 자발성을 중시함으로써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자발성의 결여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정치의 제반 문제의 해결을 자유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구조 혹은 체제 차원에서 존재하는 영향을 경시한다는 한계를 가지며, 루소의 사슴사냥이 보여주듯 신뢰가 부재하거나 부족할 경우 발생하는 개인주의의 이기주의화를 방지하고 자발성을 강제할 외부의지의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자유주의에는 이성론과 경험론의 절충 또는 화해를 시도했던 칸트가 국제정치 영역에서 국가 간 항구적인 평화에 대해 고민의 결과로 제시한 영구평화론(perpetual peace)이 포함된다.<sup>13)</sup> 칸트는 공화주의적 시민헌법에 기반한 국가 간 연합과 확산을 통해 그 실현 가능성을 열고자 했지만, 전제주의 국가나 공화주의적 시민헌법과 괴리가 있는 국가들을 공화주의적 헌법 기반 국가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법과, 전환을 거부하거나 회귀하려는 국가들 그리고 전환 이전 시기 그러한 국가들에 의한 안보의 위협이 과연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이나 선의지, 경험에 의한 학습능력, 혹은 소위 '자연의 숨겨진 계획'에 의해 자생적 혹은 자율적으로 억제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에 입각한 법치주의 공화국들의 연합에 의한 영구평화의 도래 시기 역시 명확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그 공화주의적 성격으로 인해 러셋(Bruce Russett)과 도일(Michael Doyle) 등이 제시한 민주평화이론(democratic peace theory)과도 연결될 수 있으며<sup>14)</sup>, 따라서 그 비판도 함께 연결될 수 있다. 동 이론은 자유주의 국가들 간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평화의 지대(zone of peace)가 존재한다고 본다. 평화 지대는 타협과 비폭력적 방식에 의한 분쟁의 해결 등 자유주의적 규범과 제도에 기인한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영구평화론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진보에 대한 인간의 학습능력과 이성의 역할은 역사를 통해 확신할 수 없는 수준에 그치며, 이는 권력과 지배에 대한 인간의 욕망 같은 인간의 정념에 도구적으로 봉사하는 역할 이상을 이성으로부터 기대하기 어렵다는 흄의 경험론적 통찰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13) Kant, "Perpetual Peace: A Philosophical Sketch," *Kant: Political Writings*, Hans Reiss and H. B. Nisbet, e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14) Michael Doyle, "Liberalism and World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0, No. 4 (December 1986), pp. 1154-1157.

마지막으로 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가진 서구국가들, 특히 국제정치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강대국 미국에 의해 전 세계로 투사, 확산되는 관계로 인종중심주의(ethnocentrism)라는 비판도 있다. 즉, 미국 등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자국의 정치경제체제를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들, 특히 개도국과 저개발국들에게 강요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혹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등의 라벨을 달고 수출되며, 특히 중국이 미국에 대해 제기하는 비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 III. 미중 신형대국관계의 내용과 인식의 전개

#### 1. 제1차 미중 정상회담: 미중관계에 관한 양국의 인식과 신형대국관계의 제기

중국이 미국에 대해 양국 간 신형대국관계를 구축할 것을 정상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13년 6월 7일과 8일 양일 간 캘리포니아 서니랜즈 휴양지(Sunnylands Retreat)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였다.<sup>15)</sup> 본 절에서는 동 회담의 내용을 정리, 공표하는 두 정상외의 공동 회견을 통해 나타난 미중 양국의 국제관계 현황 및 상호 간 인식의 차이와 신형대국관계의 제기 및 그 내용에 관해 살펴보려 한다. 이는 이후 양국 간의 세 차례 정상회담에서 나타나는 신형대국관계의 개념에 관한 인식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기준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후 동 개념에 대한 양국의 인식 차이는 물론 나아가 양국의 상호 간 인식의 간격과 그 변화의 추적을 가능케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오바마 대통령은 동 회견에서 미중관계가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양자 간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관계임을 지적한 후, 미국은 중국의 지속적인 평화적 부상을 환영하며, 중국의 지속적 성공이 미국의 이익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유는 평화적이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중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와 미국에게도 좋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경제측면에서의 건전한 경쟁과 함께 북핵문제부터 비확산, 기후변화와 같은 다양한 도전에 대한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동시에 언급하였다. 특히, 경제문제에 관해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같은 국제경제질서의 규칙을 강조하며 미중 간 사이버보안과 지적 재산권 보호와 같은 문제에 대해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전략적,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오바마 대통령은 인권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보편적 권리의 준수가 모든 국가의 성공, 번영, 정의의 궁극적 핵심 요소임을 역사가 증명함을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첫 번째 임기 동안 미중 양국의 국민들이 양국 간 강력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으며, 직면한 지구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것을 시 주석과 자신 모두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 동 회담

15) 신형대국관계의 개념이 미국 측에 제시된 것은 시진핑이 부주석의 자격으로 방미한 2012년이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시진핑의 주석 취임이후 국가 정상의 자격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동 개념을 공식 제시한 2013년 6월을 그 기점으로 삼고자 한다.

이 향후 양국이 수립할 수 있는 이 같은 새로운 협력 모델<sup>16)</sup>을 위한 강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시 주석은 동 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양국 간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제의하고, 그 배경과 목적 그리고 방법을 제시하였다.<sup>17)</sup> 공동 기자 회견에서 시 주석은 먼저 자신의 방미 목적이 양 대국을 위해 충분히 넓은 공간을 가진 태평양을 사이에 둔 미중 관계의 미래를 결정하고(chart) 이 관계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아가기 위함을 밝혔다. 이어, 현재 미중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이르렀으며, 자국 경제의 촉진부터 세계경제의 안정 확보, 국제 및 지역의 열점 이슈들에 대한 대처부터 모든 종류의 지구적 도전 과제들의 처리까지 양국의 공통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현황들이 양국 간 새로운 관계의 형성을 위한 배경임을 설명하고 있다. 동 상황 하에서 시 주석은 양국 모두가 원하는 관계, 양국이 상호 이익을 위해 할 수 있는 협력,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관찰의 필요성을 질문의 형태로 제기하고, 그 답을 향한 출발점으로서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과 인류의 발전 그리고 진보에 착안할 것을 요구한 후, 신형대국관계(a new model of major country relationship)의 구축이 그 답이며, 창조적 생각과 활동적 행동이 그 전제임을 제시한다. 이로부터 시 주석의 방미 목적은 새로운 역사적 배경 하에서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데, 신형대국관계의 내용은 익일 진행된 두 번째 공동기자회견에서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시 주석은 첫 번째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신형대국관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에 대해 논의하였고, 중요한 의견의 일치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뒤, 오바마 대통령과 자신은 경제 세계화의 시대에 그리고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들이 함께 해야 하는 객관적 필요성에 직면하여, 중국과 미국은 과거 대국들 간의 불가피한 충돌과 분쟁의 길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함으로써, 신형대국관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배경을 다시 제시하였다. 시 주석은 이어서 신형대국관계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타국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상호 존중과 윈-윈 협력 위에 기초해야한다는, 동 관계의 추진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전 세계가 중미 양국을 주시하고 있으며, 양국이 세계의 안정과 평화의 의지처가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신형대국관계는 중국과 미국이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되는 개념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민간과 군사영역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한 후, 신형대국관계의 구축을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에 확신을 표하고, 성공은 인간의 노력으로

---

16) 오바마 대통령은 신형대국관계라는 용어 대신 “a new model of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the kind of new model of cooperation”, “this new model of relations”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일정한 단어를 선택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 주석이 제기한 신형대국관계의 내용 중 ‘신형 대국’이나 그 안의 다른 내용보다 중미 간 ‘협력’에 인식의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17) 시 주석은 중미 간 신형대국관계의 구축 제시 주체로서 정확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新型大國關係’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주체가 중미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中美’도 사용하고 있다. 한편, 新型大國關係는 new model of major country relationship, new type of major country relationship, new type of major power relations,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등 다양한 형태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 역시 동 개념에 대한 양자의 인식론적 한계 혹은 차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가능함을 믿는다면서 양국이 기울여야 할 다섯 가지의 노력을 제시했다. 첫째, 양측은 이 관계 구축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가져야 한다. 둘째, 지난 40년의 협력이 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좋은 토대를 제공해 준다. 셋째, 중미 간에는 양측의 공동 노력을 제도적으로 지지해주는 90개 이상의 정부 간 메카니즘이 존재한다. 넷째, 중미 간 이러한 종류의 관계에 대한 강력한 대중적 지지가 존재한다. 중미 간 220쌍의 성, 주 그리고 도시 간 자매관계가 있으며, 미국에는 19만 명의 중국학생들이, 그리고 중국에는 2만 명의 미국학생들이 있다는 통계를 들었다. 다섯째, 중미 간 향후 막대한 협력 영역이 존재한다며 지속적 협력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러한 노력이 전례가 없지만 대국 간 필연적 충돌이라는 전통적 길을 피하고 새로운 길로 들어서기 위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심화하고 이견을 관리하며 구체적 성과를 축적해야 함 등을 전제한 후, 신형대국관계의 구축이라는 ‘역사의 사명(historical mission)’의 성공 가능성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신형대국관계에 대한 시 주석의 이 같은 설명과 의견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미중 간 이러한 신형관계’(this new model of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를 전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 진전의 예로서 양국 간 군사적 측면의 소통을 들면서, 향후에도 경제, 정치, 전략, 군사적 차원에서 그러한 대화와 논의를 기구화하고 정례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보다 광범위하게” 자신과 시 주석이 양국 공동의 미래를 위한 각자의 비전을 공유하고 분쟁보다는 협력적으로 함께 한다면 양국 국민의 번영과 안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점을 논의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이어 그는 중국의 지속적인 평화적 부상은 미국의 이익이자 세계 경제 추진에 유익하며, 중국의 성공은 기후변화처럼 협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지구적 도전 과제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하도록 해 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시 주석과 자신 모두 미중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sup>18)</sup>

## 2. 제2차 미중 정상회담: 미중의 상호 관계 인식 및 신형대국관계의 변화 점검

제2차 미중 정상회담은 2014년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가 종료된 후, 11과 12일 이틀에 걸쳐 열렸다. 시 주석이 자신의 안방에서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보다 안정적 심리상태에서 주도적이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전달하려 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동 회담은 전년 6월 미국에서 있었던 신형대국관계 구축 성과의 점검 기회이자 다음 해 11월에 다시 미국에서 열린 회담의 초석이자 정초

18) “Remarks by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Xi Jinp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efore Bilateral Meeting.”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3/06/07/remarks-president-obama-and-president-xi-jinping-peoples-republic-china-> (검색일: 2015년 10월 18일).

기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시 주석은 먼저 신형대국관계에 관한 언급으로부터 회견을 시작했다. 즉, 오바마 대통령과 자신이 2013년 6월 미국에서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양자 관계를 진전시키기로 한 합의를 재확인했고, 중미 간 신형대국관계(a new model of major-country relations)를 지속 발전시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그러한 관계의 진전을 위한 우선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음을 밝히고, 양자 간 투자 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의 협상 촉진,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의 마무리를 위한 추진 합의, 양국 국방부서의 장이 서명한 신뢰구축조치의 승인, 그에 기반한 군사교류, 상호 신뢰와 협력 심화, 그리고 양국 간 신형군사관계의 추진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미가 각자의 포스트-2020 목표를 공동으로 발표했고, 2015년 파리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임을 밝힌 후,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테러리즘 및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협력과 공동대처, 양국 간 인적교류의 확대를 위한 상호 비자협정 등, 양국 관계의 장기적 발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 확대와 심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또한 양국관계의 건강하고 꾸준한 성장을 위한 상호 존중, 공동의 기반 추구하고 함께 이견, 교류 및 상호 학습의 공유, 민감한 문제에 대한 건설적 방식의 이견 관리와 같은 원칙 준수에 양 정상들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시 주석은 동년 5월 CICA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아시아 안보 개념을 제시하였고, 태평양이 중미 양국의 발전과 아시아 안보를 위한 협력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넓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키고, 동 지역에서 중미를 포함한 국가 간 배타적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와 협력을 강조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이 제안한 AIIB와 실크로드 펀드의 설립이 그러한 예이며, 아태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촉진 및 공유할 수 있도록 미국을 포함한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안보 경제 현안 외에, 시 주석은 아프리카에서의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중미의 공동 대처와 전염병의 통제와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중미의 노력을 긍정 평가한 후, 이란 핵문제,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과 함께 아프간 문제에 대한 협력도 함께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시 주석은 중국이 신형대국관계의 핵심 내용인 충돌, 대립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며 협력하여 윈윈한다는 원칙들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미국과 함께 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더 큰 이익을 위해 양국 간 신형대국관계 구축( building a new type model of major-country relations)의 진전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미중 수교 35년 동안 양국이 협력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사실임을 지적한 후, 미국은 평화적이고, 번영하는, 안정적인 중국 그리고 세계 속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중국의 지속적인 부상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십 년 간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과 안정적 관계를 포함한 미국의 관여가 중국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포함한 동 지역 발전의 발전에 토대가 되어왔으며, 미중 간 무역 및 투자확대와 중국의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위해 미국이 노력해 왔음을 상기시키고, 그러한 진전이 모두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지속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양국 간 협력과 이견에 관해 오바마 대통령은 시 주석과 자신이 양국 관계 진전을 위한

방법에 대해 공동 인식을 갖고 있다고 믿고, 공동이익을 위한 협력의 확대, 이견에 대한 솔직하고 분명한 의도의 전달과 가능한 경우 그러한 이견을 축소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경쟁과 의견의 불일치에도 안보와 번영을 지속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것이 양국의 상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자신의 비전이자, 금번 방문기간 동안 자신과 시 주석이 진전시킨, 양자, 지역 및 국제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린 비전임을 밝히고 그 같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한 시 주석의 리더십에 대해 감사를 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양국의 합의와 미국의 의견 등에 관한 다섯 가지 사항을 밝혔다. 첫째는 양국 간 무역 지속의 중요성에 대한 합의와 정보 기술 협정에 관한 이해, 농업 및 식품 안전에서의 혁신 촉진에 관한 협력과 비자 연장 합의였고, 미국은 시장에 대한 결정적 역할 부여에 관한 중국 내의 개혁 논의를 환영하는 동시에, 중국의 국영기업에 대한 경쟁을 포함, 외국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의 필요성, 지적 재산권과 무역 기밀의 특히 사이버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양국 모두 기후 변화에 대한 세계적 노력을 이끌 특별한 책무가 있으며, 중국이 기울이고 있는 탄소배출 억제, 절정, 역전 노력으로 역사적 합의(a historic agreement)를 공표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도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새롭고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양국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a major milestone)라는 것이다.

셋째는 지역안보에 관해, 양국이 군 간 소통 개선을 위한 다수의 새로운 조치에 합의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북한의 병진노선이 성공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는 것,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대해 미국은 입장이 없으나 항해의 자유는 미국의 근본적 이익이며 역내 영토분쟁은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 3개 공동성명과 대만관계법에 기반한 하나의 중국 정책 재확인과 양안 간 관계의 진전, 긴장의 축소와 안정의 촉진을 장려한다는 것 등이다.

넷째는 국제 안보에 대한 중국의 기여를 환영한다는 내용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중 공동 지원, 테러리스트 단체 ISIL의 파괴, 반테러리즘 활동에서의 협력, 이란 핵 프로그램에 관한 양국의 노력,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에볼라 퇴치 협력 등이 구체적 예로서 언급되었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사람의 근본적 인권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미중관계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을 되풀이 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인권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궁극적으로는 더욱 번영하고 성공하며 더욱 꿈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런 맥락에서,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임을 인정하며 독립을 찬성하지는 않지만, 중국 당국이 티베트인들의 독특한 문화, 종교 그리고 언어적 정체성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한다고 말했다.<sup>19)</sup>

---

19) "Remarks by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Xi Jinping in Joint Press Conference,"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4/11/12/remarks-president-obama-and-president-xi-jinping-joint-press-conference> (검색일: 2015년 10월 18일).

### 3. 제3차 미중 정상회담: 미중의 상호 관계 인식과 신형대국관계의 변화 및 현황

제3차 미중 정상회담은 2015년 9월 25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본 회담은 시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 간 다섯 번째 회담으로, 2013년 6월 회담이후 지난 2년여 동안 발생했던 양국 간 내용과 성과 측면에서의 변화를 당사자인 두 정상이 직접 회고, 평가, 전망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견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거둔 양국 간의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그는 자신의 집권이후 대중 무역량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는 중국의 대미 투자와 함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어 핵 안보, 아프리카, 아프간 등지에서의 협력 등을 지구적 도전과제에서 거둔 양국 협력의 성과로 제시했다. 특히, 2014년의 기후변화에 관한 양국의 합의 발표에 큰 비중을 두어 “역사적(historic)”이라고 평가했다. 이로부터 오바마 대통령은 미중 간 협력이 더 큰 번영과 안보를 가능케 하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평화적,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그리고 국제문제에서 책임지는 국가인 중국의 부상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협력의 지속과 함께 이견에 대한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처도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그 동안 양국 간 있었던 구체적 성과와 이견 및 그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해줄 높은 수준의 상호 투자협정(BIT) 업무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 향후 미중 정부 모두 상업적 이득을 위한 무역기밀 혹은 기타 기업 비밀 정보를 포함한 지적 재산권에 대한 사이버 절도 행위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한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확장되어야 하고 미국은 자국 기업과 시민 및 국익의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임을 덧붙였다.

둘째는 2014년 기후변화에 관한 성과로, 중국이 시장기반 배출총량 거래제(national market-based cap-and-trade system)의 실시 예정을 공표한 것, 2015년 12월 파리에서 야심찬 기후변화협약을 위해 공동 비전을 추진해 온 것이다.

셋째, 아태지역 안보의 측면에서, 양국은 착오의 위험 축소를 위한 새로운 소통채널에 합의했고,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평화적 비핵화 합의를 재확인한 것, 동 및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진솔한 대화와 항해의 자유의 강조, 분쟁지역에서 중국의 간섭, 건설, 군사화 움직임에 대한 중대한 우려의 표명과 평화적 분쟁해결 격려, 그리고 세 개의 공동성명과 대만관계법에 기반한 하나의 중국 정책 재확인 등이었다.

넷째, 국제안보에서의 추가적 합의로, 아프가니스탄 발전 촉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촉진과 국제적 평화유지활동의 강화, 이란과 관련국 모두의 핵 합의 이행 및 유엔안보리결의의 전면적 이행 합의, 국제보건안전의 강화와 인도적 지원, 재난구조, 농업 개발과 식품안전 등 미중이 최초로 국제개발에 공식적으로 함께하기로 한 것 등이다.

다섯째, 인권에 관한 솔직한 대화를 통해 미국은 인권과 함께 집회, 결사, 언론, 종교의 자유를 지지함을 재차 강조하고, 중국과 중국인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인권과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한 것, 양국 간 실제적 이견의 차이를

인식한 데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마지막은 양국 간 관광 촉진, 향후 5년에 걸쳐 중국어를 배우는 미국 학생 수를 백만으로 늘리겠다는 “1Million Strong” 방안의 시행과 같은 민간 교류 확대를 위한 추가 조치의 실행이다.

회담 전반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지극히 생산적(extremely productive)”이라는 평가를 내렸고, 시 주석과의 솔직한 대화가 보다 나은 상호 이해로 이어졌으며, 오해와 착오를 피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먼저 충돌, 대립이 없고, 상호 존중하며, 협력하여 윈윈하는 신형대국관계(new model of major-country relationship) 구축을 위해 미국과 함께 하는 것이 중국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밝혔다. 시 주석 역시 2013년 6월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협력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중미 간 신형대국관계의 추진에 양국이 합의했음을 다시 언급했다. 이어, 중국에 대한 시장지위의 인정과 민간 하이테크 항목의 수출 통제 완화가 상호 이익 확대에 도움이 될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양국은 거시적 정책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경제성장과 금융 안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G20,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및 기타 다자 기구 내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군사적 측면에서 양측이 신뢰증진 메카니즘을 진전시키고, 다자 및 양자적 반테러리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평가했다. 아태지역의 안보에 관해 시 주석은 남중국해의 섬들은 자고로 중국의 영토임을 상기시키고 영토주권과 합법적 해양권과 해양이익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동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지와 함께 국제법에 따른 국가들의 항해의 자유 존중과 지지도 표명하였다. 남사군도에서 진행 중인 중국의 건설 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를 목표로 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으며, 군사화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이버 범죄에 관해서는 양국 간 고위급 공동 대화 메카니즘과 함께 핫라인 링크가 설치될 것임을 알렸다.

시 주석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바임을 밝힘과 동시에 국가마다 역사적 과정과 현실이 다름을 인정해야만 하며,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발전 경로를 택할 권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상기의 내용과 관련하여, 시 주석은 중국이 추구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근본적으로 사회적 평등과 정의 그리고 인권의 진전 과정임을 주장하고, 중국은 평등과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미국과 인권 대화를 진행하고, 공동인식을 확대하고, 이견을 축소시키며, 상호 간 학습하여 함께 진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성과와 지속 협력을 언급한 후, 시 주석은 양국이 중미개발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고,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의 식품안전, 공중보건 시스템 수립, 긴급대응, 재난 구조에서 3자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음을 밝혔다.

끝으로, 현재의 미국에 대한 시각과 중국의 대미 정책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시 주석은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 막대한 역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 역시 발전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은 비교할 수 없는 우위와 힘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어서 그는 냉전이 오래 전에 종식되었고, 경제 세계화의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국가들은 상호 의존적이라고 국제환경의 변화를 설명한 후, 시대에 맞게 진전할 것을 주장하며 “제로섬 게

입”의 낡은 개념들을 버리고 평화발전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의 대미 정책은 일관되고 투명하다고 밝히고, 양국의 공통이익이 차이(differences)보다 훨씬 크다고 진단한 후, 양국 국민과 세계의 근본적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중미 간 신형대국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임으로써 충돌, 대립하지 않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실현하게 되기를 진정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것이 양측이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확인한 후, 중국은 현 국제체제의 구축, 기여, 발전, 참여자이자 수혜자이며, 다른 국가들과 2차 대전 승리의 결실을 굳게 지키고, 현 국제체제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일대일로와 AIIB 수립 등의 제안 목적은 호혜적 협력의 확장과 공동 개발의 실현임을 밝힌 후,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이 열려 있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것이고,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sup>20)</sup>

#### IV. 신형대국관계에 관한 미중 간 인식 격차

미중의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은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양국 간 상호 인식은 물론, 지역 인식 그리고 국제정치경제 환경 인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한 인식은 단지 경험적 인식에 그치지 않고 선형적 인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의 관계에 대한 방향성의 제시, 즉 신형대국관계의 구축이라는, 당위에 대한 가치판단을 보여주며, 인권 등 가치에 대한 가치 판단도 드러낸다. 두 정상의 인식은 상대와 지역, 세계라는 대상에 대한 판단과 함께 판단의 주체로서 자신이라는 대상에 대한 판단, 즉 미중 양국의 정체성 역시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 살펴본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제기한 신형대국관계의 구축 제의와 동 개념의 내용과 현실 적용의 의미와 결과를 두 정상은 이후 두 차례의 공동 회견에서 확인시켜 주는데, 그 방식은 동 개념에 대한 언급의 빈도와 단어 선택, 국제정치경제의 역사적 맥락에서의 해석, 타자의 정체성에 대한 규정과 자아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노정, 현실적 성과와 그에 대한 평가 및 가치부여의 비중 등으로 나타난다.

본 장에서는 2장에서 제기한 두 가지 주요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인식론적 문제의식을 토대로 3장에서 정리한 세 차례의 미중 정상회담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신형대국관계에 관한 미중 양국의 인식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장은 동 세 차례의 회담이 노정시킨 미중 상호 간 인식을 분석적 편의를 고려하여 정체성, 보편성과 특수성, 소통과 교류로 나누어 검토, 분석한다.

##### 1. 정체성: 리더(leader) 혹은 가이드(guide)와 팔로어(follower)

20) Remarks by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Xi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Joint Press Conference,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5/09/25/remarks-president-obama-and-president-xi-peoples-republic-china-joint> (검색일: 2015년 10월18일).

중국이 신형대국관계를 통해 미국과 동등한 지위의 획득을 추구하고, 이를 기초로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데 비해, 미국은 기후변화와 사이버 안전, 핵 비확산 등 구체적 사안에 집중하며 이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중국의 정체성을 인식 혹은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의 인식 차는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과 그에 따른 서로 다른 인식에 기초하고 있지만, 동시에 신형대국관계의 제기 배경이 되는 중국의 성장에 따른 정체성 변화에도 기초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금세기 초 중동에서의 국력상실과 2008년 뉴욕 발 금융위기로 인한 신자유주의와 미국식 자본주의의 손상 등 소프트 파워의 상실 등으로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한 반면, 자신은 개혁개방이후 30여 년 동안 4개 현대화의 추진과 함께 지속 성장하며 정치와 특히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 몇몇 강대국 중 하나에서 미국과 함께 G2로 성장, 자신의 정체성이 단순한 강대국을 넘어선 상태로 변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sup>21)</sup> 미국이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 여전히 막대한 역량을 소유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 역시 발전하고 있다는 시 주석의 시각은 특히 중국의 발전과 그에 따른 지위의 향상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 변화에 대한 인식을 근거로 중국은 미국과 새로운 관계의 설정 시도에 나섰고, 그것이 미국에 대한 신형대국관계의 제안으로 공식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을 자신과 동일 선상에 선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제2차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포함한 동지역 발전은 수십 년 간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그리고 그 동맹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포함한 관여라는 토대가 있어 가능했으며, 또한 미국이 미중 간 무역 및 투자확대 그리고 중국의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오늘의 중국과 아시아의 위상은 미국으로 인해 가능했거나, 적어도 미국의 기여가 적지 않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미국이 세계정치경제의 리더(leader)이며, 중국은 미국의 리더십으로 인해 발전할 수 있었다는 시각의 표명이라 할 것이다.<sup>22)</sup>

리더십에 관한 이 같은 미국의 인식은 과거형에 머물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평가에도 나타난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중국의 부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본 논문의 세 차례 정상회담에서 공히 표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의 부상에 대한 긍정적 수용의 이유는 그것이 양자와 세계 모두에게 경제적, 안보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인데, 특히 다양한 지역 및 지구적 영역에서 그러한 이익의 실현을 위해서는 미국과 함께 할 '파트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미국이 주체가 되고 중국은 미

21) 袁鹏, "关于构建中美新型大国关系的战略思考,"『现代国际关系』, 2012年第5期, pp.6-7, 董春岭, "中美“新型大国关系”:“新”在何处,"『世界知识』, 2013年08期, pp.52-53.

22) 이는 단지 오바마 대통령의 시각이라기보다는 미국과 유럽 등 서구적 시각이라 할 수 있는데, Cox는 미중 간 세력전이나 아시아 시대의 도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US-EU의 지역 간 경제적 연계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크며", 아마도 이 같은 경제적 연계와 그에 따른 번영이 없었다면, 중국은 물론 아시아를 포함한 소위 "나머지"는 애초에 떠오르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은 이러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Michael Cox, "Power Shifts, Economic Change and the Decline of the West?," International Relations 26(4) 2012, pp. 369-388.

국의 ‘파트너’로서 인식된다. 특히, 2014년 11월과 2015년 9월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지지하며, 더 큰 역할을 하기 바란다는 점을 재삼 밝혔는데, 중국의 부상을 환영한다는 미국의 이러한 입장이 2013년 6월에 열린 정상회담에서와 다른 점은 ‘책임있는 역할’(a responsible role)을 하는 중국이어야 한다는 미국의 시각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지에서 중국이 역내 국가들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인식 등이 반영된 결과이자 국제법과 국제규범 등 기존 질서와 규범 내에서 행위할 것을 지적 혹은 권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이 중국의 행위에 대한 안내자(guide)로서 동 발화행위를 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존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주요 설계자이자 집행자로서 미국이 중국이 그러한 질서와 규범을 준수하고 그 한계 내에서 행위하도록, 즉 ‘책임있는 역할’을 하도록 견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미국 자신의 정체성은 리더와 안내자로 규정되며, 중국은 도전자가 아닌 파트너이자 파트너여야 한다는 미국의 정체성 인식을 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언급하면서, 세계 양대 경제체, 에너지 소비,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서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항하기 위한 지구적 노력을 ‘리드’할 특별한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이 중국에게 ‘리드할 특별한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은 미국이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현상에 대한 인식의 주체이자 그에 대한 대책의 주체이자 인식주체이며, 그 대책의 일환으로서 중국에 그 필요성을 제시하고 의무감을 인시시키려는 행위의 주체임을 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이와 같은 지구적 문제들에 대처하는 데 있어 ‘미국이 계속 세계를 리드’하기 위해서는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자 인구대국인 중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함으로써, 전술한 미국의 리더 혹은 안내자로서의 지위와 자기 정체성 인식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sup>23)</sup>

이처럼 미국은 과거는 물론 현재와 적어도 향후 상당기간 동안은 자신이 리더 혹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가야할 길을 제시하는 안내자로서의 자기이해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잠재적 리더로서 평등한 현재의 파트너로 인식되기를 바라는 중국의 자기 정체성 인식 및 미국에 대한 상대적 지위 인식과는 격차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제적 성장과 군사 현대화 등 특히 하드파워를 기반으로 한 신흥 부상국으로서, 기존 강대국인 미국과의 세력전이 과정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에 빠지지 않기 위해 중국이 제안한 미중 간 신형대국관계의 구축은 미국에게는 냉소의 대상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당위성이나 필요성 양 측면 모두에 있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양국의 자기이해와 상호 간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간격은 존재하며, 그 인식은 또한 일종의 위계적 질서를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자유주의적이라기보다는 현실주의적이지만, 동시에 충돌의 회피와 새로운 협력 모델의 구축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자유주의적이며 구성주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3) “And if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continue to lead the world in addressing global challenges, then we have to have the second-largest economy and the most populous nation on Earth as our partner.” “Remarks by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Xi Jinp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efore Bilateral Meeting,”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3/06/07/remarks-president-obama-and-president-xi-jinping-peoples-republic-china-> (검색일: 2015년 10월 18일).

## 2. 보편성과 특수성: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중국특색사회주의

푸코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방식과 양태로 존재하며 진화해온 권력과 지식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그의 계보학적 방법론을 통해 보여주었다. 지식은 권력과 유리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권력과 지식은 상보적 관계를 통해 강화된다.<sup>24)</sup> 이론이 설명 혹은 이해를 위한 지식의 합목적적 집합체라면, 특정 이론은 그 이론이 속한 분야와 그 이론의 종사자나 관계자에 대한 이론 생산자의 권력의지의 표현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 이론의 소비자는 단순한 이론의 수용자 혹은 소비자가 아닌 이론 생산자의 권력의 적용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신이 특정 이론의 수용자 혹은 소비자가 아닌 권력의 행사 대상임을 인식할 때, 인식주체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그에 대한 수용 혹은 대항을 모색하며, 따라서 자신을 향한 그 권력의 형태가 이론이라면, 이론 적용의 대상은 그 이론을 수용하거나 대안이론 혹은 대체이론의 생성을 통해 타자의 이론을 대체 혹은 반박한다. 이론이 일련의 경험론적, 선험론적 인식의 결과물로서 지식의 합목적적 종합이라면, 그러한 대체 혹은 반박을 위한 주장 혹은 이론의 생산은 그러한 인식의 경험론적 근거와 선험론적 근거에 대한 의문의 제기를 그 출발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게 된다.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영구평화론과 민주평화론 등이 전제하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의 해외확산이나 중국에의 적용, 그리고 그러한 가치들을 결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히 1990년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중국위협론 등에 대한 중국의 거부와 중국기회론 등에 의한 반박 등은 미국을 위시한 서구 그리고 중국의 각자의 역사발전 과정에서 생성된 경험적, 선험적 산물인 역사적 선입견의 충돌과 그 현재적 지속은 선입견을 극복시켜 줄 지평 융합적 지식이 아직은 출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sup>25)</sup>

실제로 중국은 국제관계이론 자체가 서양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고, 따라서 그와는 다른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동양에 맹목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sup>26)</sup> 즉, 중국은 자신의 역사와 특수성을 들어 서양의 국제관계이론의 적용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며, 중국적 국제관계이론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본문에서 살펴본 정상회담에서도 시 주석은 이와 같은 중국의 특수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중국학계에서는 동 배경 하에서 과거부터 국제관계민주화, 국제정치경제신질서, 최근 들어서는 중국특수론 혹은 중국예외주의와 같은 일련의 대안적, 대체적 성격의 이론 개발과 생산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과 국가적 특수성에 대한 인식의 종합에 기반하여 형성된 지식 혹은 이론을 통한 중국의 권력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24) 콜린 고든 편, 홍성민 역, 권력과 지식: 미셸 푸코와의 대담, 나남, 서울, 1991.

25) “선입견에 구속되어 있다는 현사실성”과 “선입견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당위”의 역설 사이에서 知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론적 모순을, 앎의 역사성으로서 선입견과 계몽주의가 촉발시킨 이성의 관계를 통해 논한 글로는 다음을 참조. 김창래, “선입견과 계몽주의: 앎의 역사성과 이성의 자율은 충돌하는가?,” 『범한철학』 제35집 2004년 겨울, pp.61-98.

26) 이는 단지 중국의 주장만이 아니며, 에드워드 사이드는 자신의 저서 오리엔탈리즘을 통해 서양의 동양에 대한 일방적 인식과 그 폐해를 지적한 바 있다. Edward. W.Said, “Orientalism,” Vintage Books, New York, 1979.

이처럼, 상술한 지식과 권력에 관한 푸코의 통찰은 국가 간 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권력 수단으로서 지식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특정 가치 혹은 지식을 타국에 이식하고, 그에 입각한 제도와 정책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에 입각한 법치주의 공화국들의 연합을 통해 항구적 평화가 달성될 수 있으리라는 칸트의 영구평화론,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 간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요약되는 도일의 민주평화론이 그 대표적 예일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가정 혹은 주장들은 신형대국관계를 구축하려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이식을 위한 제반 전략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준다. 실제로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개념을 보편적 가치와 동시에 자국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이를 타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중요한 의제로 삼아왔을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살펴 본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나타난 바 있다. 이를 간략히 되짚어 보면, 2013년 1차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성공, 번영, 정의의 궁극적 핵심 요소가 인권과 같은 보편적 권리의 준수라는 점을 역사가 증명한다며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북경에서 열린 2014년 2차 정상회담에서도 모든 사람의 근본적 인권이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미중관계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국가의 번영, 성공의 요소라는 점을 반복했다. 2015년 3차 회담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인권, 집회, 결사, 언론,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고, 중국은 중국인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인권과 자유를 보장해야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표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오바마 대통령은 매 정상회담 때마다 시 주석을 향해 그 같은 개념들을 제기함으로써 동 개념들의 실재에 대한 미국의 확신과 그 지구적 실현을 위한 단호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영구평화론 혹은 민주평화론에 기반한 미국의 이런 인식과 행위들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종중심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시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또 지속적으로 강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개념이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마다 역사적 발전 과정과 현실이 다르며, 국가들 스스로 발전의 경로를 택할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반박한 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근본적으로 사회적 평등, 정의, 인권의 진전 과정임을 주장하고, 이견의 축소와 상호 간 학습을 위해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즉, 중국의 발전 방식은 중국특색 사회주의에 따른 것이며, 미국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인권 민주주의의 개념의 경우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하지만, 시공간적 환경과 현실이 동일하지 않다는 특수성으로 그러한 개념들의 보편성에 대응하고 있다.

이에서 알 수 있듯, 이론의 이러한 일련의 생산과 적용, 비판과 대체는 자아와 타자에 대한 규정, 즉 정체성과 함께 인식론의 또 다른 문제, 즉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그 필요성은 미국과 유럽중심의 국제관계이론과 중국을 포함한 지역학에도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민주평화론이나 영구평화론 등에 기반한 미국의 인식 및 행위와 그에 대한 중국의 이견 제기 및 특수성에 기반한 반박은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소위 보편적 가치들의 강요나 보편성과 병존이 불가한 개념으로 규정된 특수성의 인정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식과 권력 그리고 그러한 차원에서 특정 국가 혹은 지역 태생의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 혹은 대체 이론 생산의 필요성에 대한

타국 혹은 타 지역의 의지 및 시도들은 이론의 발전 차원에서 가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중국이 인식론적 차원에서 쿤식 패러다임 전환(Kuhnian paradigm shift)을 실현시키고 그 실현의 존재론적 증명 주체가 되지 않는 이상, 수많은 ‘중국특색’론(論) 혹은 리관유 류(類)의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들은 기존 지식과 이론 및 현실에 대한 일시적인 자극과 반성, 그리고 그에 따른 수정과 보완의 역할은 수행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보편성과 일반성을 향한 불안정한 과도기적 특수성과 자기기만적 독백 혹은 궤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무차별주의(indifferentism)적 시각에 의해 특수성에 내재하는 보편성을 유사성으로 보든 개념주의(conceptualism)적 시각에 의해 본질을 규정하는 개념으로 보든<sup>27)</sup>, 혹은 그 차원이 관념론이든 경험론이든, 인식적 차원에서 특수성은 보편성을 그 내재적 전제로 하고, 따라서 보편성을 결여한 특수성이란 그 의미의 존재적 근원을 상실하기 때문이다.<sup>28)</sup>

### 3. 소통과 교류: 역사와 선입견 그리고 지평의 융합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신형대국관계에 관한 미중 양국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양국의 공동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 역시 분명하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 인식이 수렴되는 지점이 바로 대화와 이를 통한 이견의 축소 그리고 상호 이해라는 점은 신형대국관계의 실천 가능성에 대한 인식 차이 축소 차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실제로, 미중은 공히 충돌은 피하고 협력은 확대 및 심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 및 상호 강조하고 있으며, 경제, 안보,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그러한 인식은 현실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이 무게를 싣고 추진해 온 기후변화 대응 문제에 대해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숫자와 기한이 정해진 합의를 도출해내는 ‘역사적’ 성과를 만들어 냈다. 물론, 중국은 이에 상응하는 중요한 양보나 성과를 미국으로부터 얻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중미 간 신형대국관계 구축이라는 ‘역사의 사명(historical mission)’의 달성은 거리가 멀어 보인다. 시 주석이 세 차례 정상회담 후 매번 “우리”가 신형대국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매번 상기시키고 있는 반면, 동 개념과 ‘합의’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인식은 시 주석의 인식과 그 내용이 같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은 신형대국관계 속에서 중국이 말하는 협력을 통한 윈윈(合作共贏)의 영역에 속하며, 양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적 문제라는 점, 그리고 일단 중국이 신형대국관계의 구축을 위해 미국에 제시한 다양한 정치, 경제, 군사, 민간 차원의 대화와 교류, 협력이 현실화 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점, 이러한 대화와 협력이 양자 간 사항에 그치지 않고 북한, 이란, 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과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형대국관계가 단 기간에 구축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재까지의 경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직 선부르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이데거(Heidegger)와 가다머(Gadamer)에 따르면, 인간은 이해의 존재로 규정되며, 이해

27) 백종현 저, “철학의 개념과 주요문제”, 철학과현실사, 서울, 2007.

28) 2015년 9월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중국은 미국과 인권 등에 관해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동 개념의 지평 융합을 위한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시 주석의 인식이 달린 선입견에 기반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에 있어 언어의 역할은 관건적이다.<sup>29)</sup> 발화와 제스처, 텍스트를 포함한 언어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위한 전제조건이며, 존재의 필수조건이 되고, 인간을 존재로 규정하기 위한 이해의 매개체가 된다. 그렇다면 미중 정상 대화는 물론 각 영역과 차원에서의 상호 간 소통과 이를 통한 이해는 상호 존재의 확인과 인정을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미중 정상 대화에는 양자 모두 인정하듯이 이견과 차이가 존재하며, 시 주석의 지적처럼 역사적 배경의 차이로 인한 선입견의 개입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다머는 선입견의 역할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다. 다만 그 선입견이 긍정적이려면 베이컨(Francis Bacon)의 ‘우상(idola)들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서의 선입견이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선입견은 지평의 융합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지평의 융합은 미중 정상이 구체적 차원에서 강조하는 솔직한 의도의 표현과 대화를 통한 이견의 관리와 축소에 다름 아닐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 모두 충돌과 대립하지 않기 위해서는 솔직한 대화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호 간 표명하고 있으며, 그 의지가 비록 일부에서 점진적이지만 실현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라 해야 할 것이다.

## V. 결론

본 논문은 신형대국관계라는 개념에 대한 미중 양국의 인식 차이를, 양국의 행위기반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현실주의 그리고 자유주의라는 국제정치이론과 그에 대한 인식론적 시각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주체로서 미국과 중국이 대상으로서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국제정치이론과 그 기반으로서 인식론이 보편성과 특수성 혹은 지역성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고 기능할 수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조망해봄으로써 서로 다른 지역에 속한 경험적, 선형적 인식과 그 결과의 축적으로서 형성된 지식의 담지자로서의 국가들 간 상호 인식과 교류, 그리고 그에 따른 지식의 흐름과 인식의 변화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신형대국관계의 첫 번째 사항인 충돌과 대립은 현실주의적 시각을 전제하고 있으며, 두 번째 상호 간 존중 및 세 번째 협력과 윈윈은 자유주의적 시각에 기반하고 있다. 충돌과 대립의 회피는 권력과 지배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전제로 한 고전 현실주의와 무정부라는 체제차원에서 국가는 자조에 의지하며 안보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는 신현실주의적 시각을 경계하고 있으며, 상호 존중과 협력 그리고 윈윈은 인간의 평등과 자유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시각과 그 연장선상에서 상호 간의 협력과 그에 따른 결과로서 윈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제도주의적 시각에 각각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신형대국관계의 개념적 출발과 포괄적 함의는 국가 간 무정부상태와 그 내용은 국가가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구성주의적 시각에 기반하고 있다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형대국관계의 개념을 카야(Edward. H. Carr)를 비롯한 현실주의자들의 시각

29) 한스 인아이헨 저, 문성화 역, “철학적 해석학”, 문예출판사, 서울, 1998, pp.168-212.

에 입각하여 1차 대전 이전의 낭만주의 혹은 비현실적 이상주의로 치부하는 것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팅턴(Samuel Huntington),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 처럼 국가 간 건설적 관계의 수립을 문명 혹은 구조차원에서 운명론적 시각으로 부정함으로써 영합(zero-sum)적이며 상호파괴적인 충돌을 소위 자기실현적 예언으로 정당화시킬 위험성마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주의자들 역시 권력 사용에 있어 절제가 가능하고 또 절제해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부시행정부 시기 네오콘의 이라크 침공에 관한 대표적인 현실주의자들의 경계와 비판은 신형대국관계의 구축 가능성이 세력전이과정에서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으로 인해 비현실적인 이상주의 수준으로 격하되는 것이 유일하거나 정당한 판단이 아니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아님을 방증한다.<sup>30)</sup> 또한 세력전이론이 기존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이 세력 전이의 과정에도 속도와 인식 등 제반 인식론적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위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유일하며 필연적인 결과라고 결론 짓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동맹의 역할도 경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신형대국관계와 그 하위 차원인 신형군사관계의 구축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단선적 단정이라 할 수 있다.

국가 간 소통이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언어는 현상에 대한 인식의 표현이며, 인식은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우상의 질곡을 생산하는 한계에 직면한다면, 신형대국관계의 개념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해석은 단지 언어의 해석이 아닌 상호 간 인식의 해석을 의미하며, 미중 간 동 관계의 개념은 그러한 해석이 상호 간의 닫힌 선입견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그 실현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신형대국관계에 대한 미중의 인식 격차가 축소되고, 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지평의 축소라는 방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 군, 민간 등 다양한 차원과 영역에서의 소통과 교류 지속 및 확대, 그 같은 동시적, 역사적 소통과 교류 속에서 닫힌 선입견의 지양을 통해 '정당한 이해'에 도달하려는 노력의 경주, 그러한 노력 속에서 소통의 텍스트에 대한 해석과 현실 적용의 변증법적 상승 순환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김창래, “선입견과 계몽주의: 앎의 역사성과 이성의 자율은 충돌하는가?,” 『범한철학』 제35집 2004년 겨울.

백종현 저, “철학의 개념과 주요문제”, 철학과현실사, 서울, 2007.

최고원, 가다머 해석학과 선입견의 반성- C. G. 융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철학논총, 63,

30) John J. Mearsheimer, "Hans Morgenthau and the Iraq War: Realism versus Neo-Conservatism," opendemocracy.com, posted May 19, 2005; Mohammed Nuruzzaman, "Beyond the Realist Theories: 'Neo-conservative Realism' and the American Invasion of Iraq," Paper presented at the 2005 Canadi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PSA) annual conference held in London, Ontario, June 2-4; Daniel Lieberfeld, "Theories of Conflict and The Iraq War," International Journal of Peace Studies, Volume 10, Number 2, Autumn/Winter 2005; 등을 참조.

2011.

콜린 고든 편, 홍성민 역, 권력과 지식: 미셸 푸코와의 대담, 나남, 서울, 1991.

한스 인아이헨 저, 문성화 역, “철학적 해석학”, 문예출판사, 서울, 1998.

Baylis, John, Steve Smith, Patricia Owens, eds.,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Fourth E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nc, 2008).

Cox, Michael, “Power Shifts, Economic Change and the Decline of the West?,”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6 No.4, 2012.

Doyle, Michael, “Liberalism and World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0, No. 4, December 1986.

Kant, Immanuel, “Perpetual Peace: A Philosophical Sketch,” *Kant: Political Writings*, Hans Reiss and H. B. Nisbet, e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Lieberfeld, Daniel, “Theories of Conflict and The Iraq War,” *International Journal of Peace Studies*, Volume 10, Number 2, Autumn/Winter 2005.

Mearsheimer, John J., “Hans Morgenthau and the Iraq War: Realism versus Neo-Conservatism,” *opendemocracy.com*, posted May 19, 2005.

Morgenthau, Hans J.,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Fifth Edition, (New York: Alfred A. Knopf, 1978).

Nuruzzaman, Mohammed “Beyond the Realist Theories: ‘Neo-conservative Realism’ and the American Invasion of Iraq,” Paper presented at the 2005 Canadi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PSA) annual conference held in London, Ontario, June 2-4.

Said, Edward. W., “Orientalism,” *Vintage Books*, (New York, 1979).

Snyder, Richard, Bruck, Sapin, *Foreign Policy Making: An Approach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Free Press, 1962).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M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Wendt, Alexander,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2(Spring 1992).

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Xi Jinp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efore Bilateral Meeting,”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3/06/07/remarks-president-obama-and-president-xi-jinping-peoples-republic-china-> (검색일: 2015년 10월 18일).

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Xi Jinp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ter Bilateral Meeting”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3/06/08/remarks-president-obama-and-president-xi-jinping-peoples-republic-china-> (검색일: 2015년 10월 18일).

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Xi Jinping of China Before Bilateral Meeting,”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March 24, 2014,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4/03/24/remarks-president-obama-and-president-xi-jinping-china-bilateral-meeting> (검색일: 2015년 10월 18일).

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Xi Jinping in Joint Press Conference,”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4/11/12/remarks-president-obama-and-president-xi-jinping-joint-press-conference> (검색일: 2015년 10월 18일).

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Xi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Joint Press Conference,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5/09/25/remarks-president-obama-and-president-xi-peoples-republic-china-joint> (검색일: 2015년 10월18일).

“習近平概括中美新型大國關係：不沖突、不對抗，相互尊重，合作共贏，” 『新華網』，2013. 6. 10, [http://news.xinhuanet.com/world/2013-06/10/c\\_116107914.htm](http://news.xinhuanet.com/world/2013-06/10/c_116107914.htm) (검색일: 2015. 10. 18).

袁鵬, “關於构建中美新型大國關係的戰略思考,” 『現代國際關係』, 2012年第5期, pp.6-7, 董春屹, “中美“新型大國關係”:“新”在何處,” 『世界知識』, 2013年08期, pp.52-53.